

보도시점 2026. 7. 31.(금) 08:00 배포 2026. 7. 31.(금) 08:00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년 앞두고 성공 개최 다짐

- 7. 31. 대전에서 대회 개최 365일 전(D-365) 기념행사 개최
- 김대현 제2차관, 대회 준비 상황 점검 및 대회 적극 지원 표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7월 31일(금) 오후 2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대전드림아레나에서 열리는 기념행사(D-365)에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다짐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대회 개막 365일 전(D-365)을 맞아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가 하나 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차관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홍종완 충남 행정부지사, 윤용근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이정우 대회 조직위원장 직무대행,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4개 시도 의회 의장, 4개 시도 체육회장 등 조직위 및 시도 관계자 450여 명이 함께한다.

’27년 8월 1일,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50여 개국,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선수와 임원, 미디어를 포함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형 국제대회로서 선수단 1만 5천 명이 방문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회 시설 76개소 중 경기장 신축(3개소)과 개보수(33개소)가 진행 중이며, '27년 5월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폐회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월에는 개·폐회식 총감독을 선임했다. 대회 조직위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탁구 등 시험 경기(테스트 이벤트)들을 거쳐 경기장과 대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현 차관은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충청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국제대회다. 충청의 힘과 매력, 지역의 단합된 마음이 함께한다면, 분명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이혜림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홍승모 (044-203-3163)

